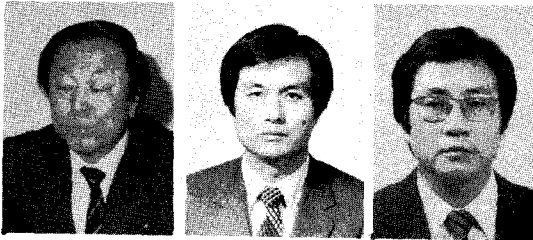


대한양계협회의 소식

닭질병 및 배합사료 강습회 성료 - 사료협회와 본회 공동으로 전국순회 -



(남궁 선 박사) (권 배 전무) (김기석 박사)

지난 3월말 부터 본회와 사료협회가 공동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닭질병 및 배합사료 강습회」가 (본지 4월호 p139참조) 4월6일(금)오후 2시 부산 동래구 온천예식장에서, 16일(월)오후 2시 홍성 원앙예식장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지난달 서울, 광주, 수원 에 이어 계속된 이번 세미나에는 부산지역의 양계인 130여명과 충남지역의 양계인 150여명이 참석해 질병 및 사료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낸 바 있다.

강사로는 사료협회 권 배전무, 건국대학교명원재교수, 가축위생연구소 남궁선 계역과장, 최정욱박사, 김기석박사 등이 초빙되었으며, 뉴캐슬병 (ND) 및 닭전염성후두기관염 (ILT) 등 질병에 대한 의견교환과 함께 닭의 백신프로그램이 논의되었고, 사료문제는 사료곡물다변화

에 따른 배합사료의 수급 및 품질 가격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특히 양축가들은 사료가격 및 품질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다.

한편 작년말 이후 가축위생연구소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홍보로 각양계장에서는 ND, I LT 등 예방용 백신집중을 철저히 하여 급년초양계질병 발생보고가 뜸했으나 급년들어 ND 백신 사용량의 격감으로 앞으로는 ND 발생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간이계사 철거유보 건의회신

- 경기도, 빈계사 우선정비 유도 - 보전가치 희박한 상대농지 전용허가

본회가 지난 4월초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는 간이계사 시설의 정식계사 또는 건축물로 인정해 줄것, 부득이한 지역은 수급상 철거유보 또는 해당농가와 협의해 무리없이 이전해 줄것, 계사신축규제를 완화해 간편한 수속으로 계사신축을 할수 있도록 조치에 달라는 내용의 간이계사 철거 유보건의(본지 4월호 p144참조)에 대해 경기도는 ▲ 비닐하우스를 현행법상으로는 정식 건축물로 인정할 수 없으며 ▲ 경기도는 현재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있고 사전통보에 의해 빈계사를 우선적으로 점진적인 정비유도를 하고 있으며 ▲ 상대농지로서 보전가치가 희

박한 농지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면적범위내에서 큰 규제없이 적법절차에 의거 전용을 허가하고 있다고 지난 4월 24일 본회에 회신한 바 있다.

도계유통 및 가공세미나 개최예정

- 본회와 한국가금학회 공동주최 -

6월 1일 오후 ASA 후원으로

본회는 국민식생활향상으로 닭고기 소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으로 위생적인 닭고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가금학회와 공동으로 도계유통 및 가공세미나를 오는 6월 1일(금) 오후 2시 부터 롯데호텔 건너편 미문화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대두협회(ASA) 한국지부(대표 이경원)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미국 알칸사주립대의 Poultry processing and marketing 전문가 Guest 교수(Dr. Goodwin)를 초빙하여 미국실정과 비교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도계처리, 가공, 이용에 대한 강의를 하게된다.

이번 세미나는 도계장대표 또는 책임자, 계육가공·유통업체 관계자, 브로일러 사육농가, 관계공무원 및 유관단체 관계자, 기타 도계처리·가공·유통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 도계장에서 개별적인 자문(도계기술, 유통등)을 원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강사와 협의의 거쳐 신청도계장을 방문해 자문을 해결 예정인 바, 필요한 도계장은 본회(☎ 752-3571~2 편집국)로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

이번 세미나의 일시 및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일시 : 6월 1일(금) 14 : 00~17 : 00
- 장소 : 미문화원 1층(롯데호텔 건너편)
- 주제 : 도계기술, 도계유통 및 가공
- 강사 : Dr. Goodwin(미국 알칸사주립대학교 교수)

알젠티 양계이민 희망자 모집

한국 양계의 해외진출을 추진해온 본회에서는 작년도의 나이지리아진출에 이어 (본지 83년 12월호) 금년도에는 알젠티에 양계이민을 주선할 계획이다.

알젠티는 사료원료가 풍부하고 최근 중동지역에 닭고기수출이 활발함에 따라 전망이 좋은 성장산업으로 한국양계인이 진출하기에 적당한 곳이다.

기후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이번 진출코자 하는 곳은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 근처로 우리나라 부산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민을 희망하는 회원(회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본회에 신청하면 심사후 선정한다.

〈신청 자격〉

양계에 다년간 경험이 있고 신앙인을 우선함.

Tel. 752-6917

(양계협회 편집국)

계란군납제도 일부개선 건의

- 중란 및 대란 시중규격과 동일하게 -

최근 계란군납을 하고있는 양계농가에서 군납계란의 규격등, 납품계약조건 등을 개선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본회는 생산자를 대표해 축협중앙회에 계란군납제도 일부개선 건의서를 냈다.

양축가들에 의하면 계란가격은 연중 가격변동이 심해 시세에 따라 납품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닭의 일생중 약 9% 정도밖에 생산되지 않는 중란을 납품하고있어 물량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행 중란 48g 이상 규격이 시중 계란규격(중란 47g 이상)과 차이가 있어 재계근으로 인한 불필요한 조작비가 소요되며, 가격결정후 제변동요인으로 공급에 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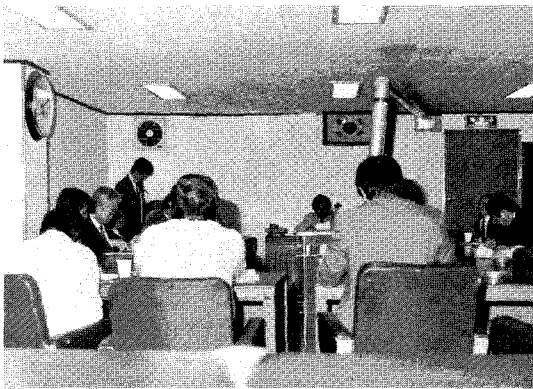
움이 있으므로 안정되게 공급할수 있도록 시정해 줄것을 건의한 것이다.

이번 건의에서는 ▲ 양계농가의 생산의욕과 효율적인 물량확보를 위해 계란생산비에 적정이윤과 조작료를 포함한 가격에서 납품가를 결정하고 ▲ 계약규격을 시중유통과 동일하게 재조정해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고 물량확보가 용이한 대란으로 규격을 변경해 줄것을 건의했다.

한편 지난 4월 16일 개최된 채란 분과위원회에서는 계란군납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간담회가 개최되어 축협 관계자와 광범위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4 월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 양계산물 군납에 대한 간담회도 —



△ 4 월 채란분과위원회

올해 네번째 채란분과위원회가 4월 16일 축산회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 앞서 「계란 및 닭고기의 군납현황과 개선방향」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축협중앙회의 이계홍 군납과장은 계란의 군납가격 결정과정과 규격조정문제 등 제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이어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사료값 인상등 생산비 변화에 따라 군납가격은 변동이 없고, 수수료 등을 정부나 축협에서 부담할 수 없

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이계홍 군납과장은 '작년 사료값 인상시 그 요인을 감안했으며 농가의 압박이나 축협으로서의 어려운 점은 생산자 입장에 서서 계속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란 규격은 48g 기준에서 47g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농수산부에서는 실제로 다 규격이 1g씩 높게 되어 있어 이의 재조정을 건의했다. 또 중란의 물량확보가 어려우므로 대란도 납품토록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말에 의해 '관계당국과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대란납품문제는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계약을 연간으로 하지 말고 분기별로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협회업무보고에서 황인옥전무는 배합사료가 적안정에 대한 대정부건의, 양계순회강습회, 간이제사 철거유보 건의, 가끔 및 가끔산물 수입금지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콜레스테롤에 대해 언급, 그 필요성에 대하여 여성잡지, 건강잡지 등에 홍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안건토의에서는 가고시제를 없애고 실제거래 가격으로 고시하자는 의견이 재차 거론되었으며, 하락시에도 즉시즉시 가격을 고시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 밖에 작년에 비해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닌데도 가격이 하락되고 있다고 지적, 이의 원인으로는 생산자들의 정보교환이 늦고, 또 콜레스테롤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콜레스테롤에 대한 소비자의 올바른 인식을 위해 본회는 채란분과위원을 주축으로 대중잡지, TV 등에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중부지역 대의원 선출

84 및 85년도(임기 2년) 중부지역 대의원 선출을 위하여 지난 3월29일(목) 회의를 개최하였던바 본회 집행부에 그 선출권이 위임되어 각 분과 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서울4, 경기6, 강원2, 충북2명 등 14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다.

● 대한양계협회소식

종계·부화분과위원회 개최

— 닭백신 85년초까지 국산화—

성명	소속	지역별	비고
신정재	과학사료 대표	서울	유임
윤용구	동남축산 대표	"	"
강홍열	대덕상사 대표	"	"
김진의	제일제당 이사	"	"
신정일	구량랜드 대표	경기	신임
신주영	고골부화장 대표	"	"
백명기	해원농장 대표	"	"
원용주	삼양농장 대표	"	"
유수기	부로부화장 대표	"	유임
이하순	해동부화장 대표	"	신임
홍중철	미량농장 대표	강원	"
정용철	춘천부화장 대표	"	"
정석택	명지부화장 대표	충북	"
이순오	죽전부화장 대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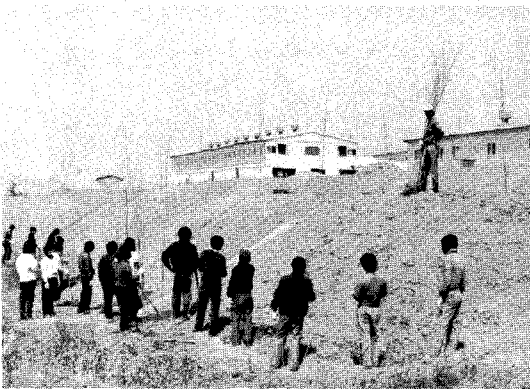
84년도 첫번째 종계·부화분과 분과의원회가 4월11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 앞서 가진 질병방역 대책에 관한 세미나에서 안양가축 위생연구소의 남궁 선 계역과장은 “질병방역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나 현재 방역계 담당인원이 적고 각도 축산과 수의계, 각 위생시험소 등에서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제하고 최근에는 복합감염이 많고 전파속도도 빨라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백신의 보급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4개의 메이커에서 백신을 보급하고 있는데 이미 선진화되어 있다고 전하면서 가축위생 연구소에서 85년 초까지는 마력백신, 오일백신 등 닭 백신을 국산화할 방침이며, 앞으로는 국산백신을 불신하던 풍토를 쇠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종계장에서 병명도 확실치 모르면서 백신을 수입하여 접종하는 예가 있는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 또다른 새로운 질병이 잠입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종계장과 부화장에서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질병 발생시에는 우선적으로 가축위생 연구소에 문의하면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닭 검정소 기념식수



본회 황인옥전무 등 전직원은 4월13일 검정소 조경공사를 위해 경기도 안성군 중리소재 닭경제능력 검정소 현장에서 식수작업을 벌였다.

이날 협회 직원들은 진입로변, 계사뒤 야산, 정문앞 등에 5~10년생 은행나무 등 400여주를 식수했으며, 공사현장을 일일이 둘러보았다.

한편 본회 차상진이사, 김성경이사, 정채원 이사가 나와 직원들을 격려해 주었다.

이밖에도 최근 미국내 4개주 지역에 가금 인플루엔자가 발생, 1천3백 만수가 폐사되고 있는 실정이며, 만일 이 병이 한국에 전파될 경우에는 전 양계산업이 존폐위기에 몰릴 수도 있어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 가금인플루엔자로 인하여 미국내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한 금수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황인옥전무의 협회주요업무 보고에 이어 본 회의에서는 부화분과위원장에 박준영부회장을, 종계분과위원장에 신흥종부회장을 선임하였다.

또 종계·부화업에는 어려움도 많고 회의에 빠질 때도 있으나 친직으로 알고 열심히 종사하는 마음 가짐이 필요하며, 종계 및 부화업자의 결속을 다지는 기회를 자주 갖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음 모임은 5월 9일에 갖기로 했다.

4 월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지역별 입추정보 교환도—



지난 4월 27일 4월중 육계분과위원회가 본 회의회의실에서 전국의 생산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본회 박준영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박부회장은 3월에서 5월까지의 조생추 물량이 증가하고 8월 이후에는 감소할 것

로 전망 했으며, 육계가격패턴과 불황의 해결책 등에 대한 의견이 교환되었다.

이어 정보교환 및 전망검토에서 경기 지역의 육계가격은 대체로 800원에서 870원선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남부지역은 1,000원대를 유지하여 비교적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조생추 가격은 조생추 수수의 증가와 육계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품종별 차이가 있으나 200원에서 280원을 유지하고 있다. 5월의 전망은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강보합세가 예상되나 생산자들의 입추에 신중을 기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도계운반 차량을 냉동차에서 탑차로도 운반이 가능하도록 해줄 것과 계육의 계약생산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간이 제사철거에 대한 대책, 축산법개정안에 대한 토론 일본양계 연수생 모집에 대한 현황설명으로 회의를 마쳤다.

양계질병에 대한 토론회

— 예방의학 연구회 주최로 —

5월 12일(토) 오후 2시 안양 뉴코리아호텔 크리스탈룸에서는 「양계질병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다.

내용은 전염성 기관지염의 감염양상 (발표: 서울대 김선중교수), 바이러스성 관절염의 감염형태와 분포 (발표: 가축 위생연구소 이영욱 박사), 가금 인플루엔자의 방역대책 (발표: 연암대 원송대교수) 등이다.

회비는 5,000원으로 회의가 끝난 후 회식을 갖을 예정이다.

SPF 종란 수급 협의회 개최

3월23일 오후 1시 가축위생연구소에서 백신메이커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SPF 종란수급 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9월 부터 SPF종란가격을 인상키로 협의했다.

본회 방문



(일본 아바에이카
이또요시히데 부장)

일본 아바에이카<주> 이또 요시히데 영업부장은 한일농원(대표 차두홍)의 초청으로 내한, 지난 4월17일 오전에 본회를 방문하여 양국 양계산업에 대한 공동 관심사를 논의한 바 있다.

플루엔자가 한국에 유입되는 경우 전 양계산업이 존폐위기에 몰릴 것으로 우려되어 각계의 각별한 유의를 요하고 있다.

한편 농수산부로부터 가금 인플루엔자 방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공문이 접수되었다.

○미국내 일부지역(펜실바니아, 버지니아, 뉴저지, 매릴랜드)에서 가금류(야생조류 포함)에 치명적인 병독성 전염병인 가금 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가 발생하여 미국내 양계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바,

○동질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하여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가금류(야생조류 포함)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는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수입이 금지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내 3월초까지 발생상황은 별표와 같다.

검정소 헌수 계속 답지

미국 가금류 및 가금산물 수입금지

—미국내 가금 인플루엔자 피해 극심—

이미 본지를 통해 수차례 보도한 바와 같이 미국내 가금 인플루엔자 피해가 극심, 강독의 경우 100%의 폐사율을 나타내는 등 한국 양계 업계에도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만일 이 인

본회 닭경제능력 검정소 헌수자 중 지난호(P 140참조) 게재 누락자 및 4월중 헌수자 명단은 다음과 같으며 4월말 까지 헌수실적은 총 691좌(6백91만원)와 5~10년생 나무(은행나무, 전나무, 후박나무 등)216주가 답지해 지난 4월 13일 본회 직원들이 식수작업을 한 바 있다.

*미국내 가금 인플루엔자 발생상황

발생·검사일자	발생계군수	발 생 지 역	폐사수
83. 11. 4	18	펜실바니아 동남부 4개지역	
12. 5	46	펜실바니아 동남부	(25개 계군) 1,077,735
12. 13	134	펜실바니아 남부	(122개 계군) 5,500,000
12. 28	196	펜실바니아 동남부	(185개 계군) 7,593,801
84. 1. 3	217	펜실바니아 216, 뉴저지 1	(209개 계군) 8,200,000
2. 6	274	펜실바니아 265, 버지니아 7, 뉴저지 1, 매릴랜드 1	(271개 계군) 10,445,963
2. 22	292	펜실바니아 273, 버지니아 17, 뉴저지 1, 매릴랜드 1	(288개 계군) 11,224,580
3. 8	313	펜실바니아 283, 버지니아 28, 뉴저지 1, 매릴랜드 1	(306개 계군) 11,800,648

● 대한양계협회소식

아직 현수를 못한 양계인 및 유관기관에서는 계속 본회로 현수서를 보내주면 된다.

성명	소속	구좌수
백유록	동신중공업(주)	20
차상진	봉명부화장	20
김현	발안농장	10
이재식	제유부화장	10
전남지부		10
박길수		1
박규병	본회 경북지부장	10
김성경	대지농장	10
강희용	안성군 공도면 양기리	후박나무 3주
고증현	대한특수기계	5
민중기	대한제당(주)	5
한국사료협회		10

생산자 및 유관단체장 간담회

- 5월 3일, 오찬회 가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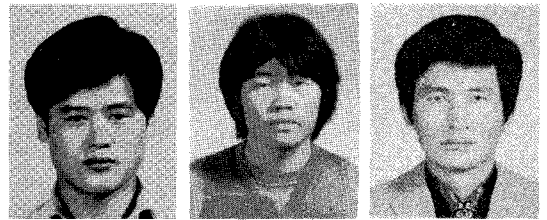


본회를 위시한 대한양돈협회(회장 전 동용), 한국낙농비육협회(회장 유 윤수), 한국사료협회(회장 정 태원), 대한수의사회(회장 전 동용) 등 생산자단체 및 유관단체장 간담회가 지난 5월 3일 영동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개최되었다.

각 단체장 및 전무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에는 양돈협회에서 주관, 오찬회 형식으로 개최되었으며, 축산법개정(안)의견교환 등 축산전반에 공동관심을 교환하였으며, 앞으로 매월 각단

체에서 돌아가면서 단체장 간담회(조찬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한편 필요시 관계인사를 초빙 정보교환을 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단체 전무단으로 구성된 협의회에 위임키로 했다.

본 회 인 사



(정기운)

(최흥규)

(이성준)

84. 3. 1 정기운 경남북·부산·대구 기반조사요원
 4. 23 최흥규 경제능력 검정소
 5. 1 이성준 전남북·제주 기반 조사요원
 5. 4 한경택 경제능력 검정소
 4. 16 박정래 경제능력 검정소장 의원면직
 4. 30 정희철 기반조사 요원 의원면직

부화·종계 분과위원회

매월 2째주 수요일
 오후 2시 본회회의실

〈공휴일은 순연〉

6월은 13일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이며 분과위원이 아닌 관심있는 부화·종계업자의 참여를 적극 환영합니다.